

# 개학 1주일 앞두고...교육현장 곳곳 물난리

침수·옹벽 붕괴·토사 유출

광주 25곳, 전남 15곳 피해

일부 개학후 복구 공사 불가피

최근 며칠간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에 광주·전남 교육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대다수 학교들이 개학을 불과 1주일 앞둔 가운데 학교시설 곳곳이 잠겨거나 무너지고 파손돼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수백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수해를 입은 학교와 교육청 산하 시설이 광주에서만 25곳, 전남에서도

15곳에 달했다.

광주와 전남 동부지역 급식실 주변 폭 30m, 높이 20m의 토사면이 유실되면서 주변 일대가 황토빛으로 변했다. 학교 측은 피해 지역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울초에서는 폭우로 학교 뒷편 옹벽이 30cm 가까이 밀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장면과 배수로가 솟아올라 압성토를 쌓는 등 긴급 보수작업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정밀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성여고와 동아여고·서강고·서광중·무학초·분량 학생야영장 등지에서 다량의 빗물을 머금은 아산의 흙이 밀려 들었고 지산초에서는 운동장이, 중앙

초에서는 강당과 과학실이, 광주공고에서는 실습동이, 주월중에서는 급식실 안쪽 벽 전기함이 물에 잠기거나 빗물이 새긴 급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전남에서는 담양과 구례에 피해가 집중됐다.

담양고에서는 기숙사 지하와 급식실이 물에 잠겼고, 한재초에서는 운동장·급식실·본관 화장실·별관교사동 등이 침수됐다. 담양남초는 운동장·강당·창고·숙직실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에서는 구례중앙초 연립사택이 침수됐고, 구례고 후관동 3층 복도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구례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도 한때 물에 잠겼다.

나주 영산고에서 석축 붕괴와 수목 쓰

러짐, 토사 유출이 발생했고, 광양 다압초에서는 운동장과 급식실이 침수됐다. 화순 사평중에서는 옹벽이 붕괴됐고, 함평 여중에서는 운동장과 체육관, 관사가 침수됐다. 영광에선 법성포초와 흥농서초에서 토사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학교는 임시공휴일인 17일 이후 개학을 예정이어서 피해 복구가 늦어질 경우 개학 후 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정밀진단이 시급한 피해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개학 전 복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학습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홍수를 피해 지붕 위에 있던 소가 구조벨트에 얹어져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 마취총에 크레인까지 동원 구례 지붕위 소 구출 대작전

1000여마리 물살에 실종

180마리 주인 찾아줘

200여마리 죽은 채 발견

"오메, 내 소 새끼, 그 높은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살아줘서 고맙다"

홍수를 피해 지붕 위로 피신했던 소떼 구출작전을 지켜보던 농민들은 구조벨트에 얹어진 채 내려오는 소를 지켜보며 탄성을 질렀다.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 때 축사를 탈출, 물 속을 바둥거리다 필사적으로 올라섰던 지붕 위에서 꼬박 하루를 보낸 뒤에야 구조된 셈이다.

전남소방본부 구조대원들은 10일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황소들에 대한 착륙 작전을 감행했다. 구례군과 구조대원들은 마취총과 중장비 등을 동원했다.

마취총을 맞아 겁에 질린 채 주저앉아 있는 소에 다가가 크레인 갈고리에 연결된 구조벨트를 머리와 앞발, 뒷발 부분에 걸었다. 1t 에 이르는 소의 중심이 흔들리며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소가 땅에 발을 디디자 지켜보는 마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다. 모든 소들이 무사히 구조된 건 아니다. 건물지붕이 붕괴되며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소, 숨진 소 등도 있었다. 구조대 등이 이날

지붕 위에서 내려놓은 소만 18마리다.

구례군 등은 소방본부와 9일부터 이틀 동안 지붕 위 소들에 대한 착륙 작전을 진행해왔다. 이번 집중 호우로 양정마을 일대가 침수되면서 물 난리를 피해 축사와 주택가 지붕 등으로 올라갔다가 물이 빠지면서 오도기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소만 80마리에 이른다.

구례군은 지붕 위 소떼 뿐 아니라 홍수를 피해 탈출해 강이나 제방 근처에 있던 소들도 찾아 끌어올렸다. 이렇게 구조해 주인 품에 돌려보낸 게 180여마리다.

잃어버렸던 소들을 다시 찾은 축산 농민들은 모처럼 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모든 소들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다. 죽은 소들을 실어나르는 10t 트럭도 분주히 구례를 돌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 영구자'로 불린다.

구례군은 트럭을 동원해 모두 200마리가 넘는 죽은 소들을 실어담았다. 군은 죽은 소를 천안에 위치한 축산물 처리업체로 보내 폐기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 양정마을에 서만 모두 44농가가 1527마리를 키웠다. 이번 집중호우로 200마리 가량이 죽고 구조된 게 180여마리 등이다. 나머지 1000여마리는 집중호우에 타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이 트럭을 동원, 죽은 소들을 실어내리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광주 복구 발전 마중물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 300억 뉴딜사업 본격화

광주시 복구가 전남대와 함께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복구에 따르면 복구는 2023년까지 지역발전을 선도할 도시재생 사업으로 중흥동과 전남대 정문 일대에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기반 조성 ▲지역 문화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복구는 내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창업교육, 문화커뮤니티, 공동체 활동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진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행복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이후 25억 원을 투입해 행복어울림센터 주변 대학과 연결한 경계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실시한다.

또 중흥동과 전남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가로경관(23억원)사업, 쌈지공원(11억원) 조성사업, 공영주차장(45억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대와 협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역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게 복구의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호남대 학생들이 수해복구 봉사

호남대학교 사원나눔센터 봉사단원들이 10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을 정리하고, 인근 주택가로 몰려든 토사를 치우는 등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다.

<호남대 제공>

## 동신대, 2학기 등록금 10% 감면

1인당 최대 42만6000원

동신대학교가 등록금 감면 대열에 합류했다.

동신대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지난 1학기 실제 납입한 등록금의 10%로, 재학생 1인당 최대 42만 6000원의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특별장학금 지급은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

장학금은 장학금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출이 절감된 각종 사업 예산을 활용한다.

동신대는 지난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총학생회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특별 장학금 지급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른 걱정하지 않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 131곳 몰카 설치 여부 조사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 131곳을 대상으로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반을 동원하고 자치구의 인력과 탐지기를 지원받아 12월까지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화장실뿐 아니라 불법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점검 요청이 있으면 점검반을 출동시키고 탐지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

